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4. 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이란 연계 테러조직 지원한 혐의로 기업·개인 제재
 - 3.26 美 재무부는 이란·이라크의 고위관리 및 20여개의 유명회사가 헤즈볼라와 이라크 내 이란 연계 테러조직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에 착수,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
- 텔레그램, 테러선동 수단 및 범죄 온상지로 악용
 - 국제 IT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 '텔레그램'(Telegram)은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비밀유지 등이 큰 장점이나, ISIS의 테러선동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범죄모의·음란물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등 각종 범죄 온상지로 전락했다고 평가
- 코로나19, 대량살상무기 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
 - 생물무기는 핵·방사성물질·화학무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량살상 무기이나, △코로나19는 잠복기가 길어 즉시 효과를 내기 어렵고, △백신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군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이용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
 - * 美 화학민간방위위원회는 생물무기 효과범위가 화학무기 대비 340배 넓다고 분석

아 · 태평양

- 탈레반, 아프간 정부 협상팀과 협상 거부
 - 3.28 로이터통신은 「자비훌라 무자히드」 탈레반 대변인이 “아프간 정부의 협상팀이 아프간의 모든 파벌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”며

협상을 거부하였는데, 아프간 정부는 “사회 각기 다른 계층과 폭넓은 논의를 거친 후 협상팀을 구성하였다”고 반박한 것으로 보도

○ 인도, 파키스탄 테러리스트에 의한 델리 테러위협 경고

- 3.29 인도 정보기관은 잠무카슈미르에서 활동하던 파키스탄 테러범 2명이 수일 내에 델리에 잠입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는데, 이들은 ISIS에 충성을 맹세하며 인도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몰두할 때 테러를 자행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선전매체에 게재하였다고 발표

중 동

○ 시리아, 교도소內 ISIS 수감자 폭동 및 탈옥

- 3.29 시리아민주군은 하사케교도소*에 복역중이던 ISIS 수감자들이 내부 보안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으나, 사태를 수습하고 탈옥한 일부 수감자에 대한 추격작전을 전개중이라고 발표

*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이 관리중인 교도소(ISIS 포로 약 1만명 수감)

○ 이스라엘 보안軍, 팔레스타인인 테러 용의자 2명 체포

- 3.31 이스라엘 보안軍은 서안지구 라말라(Ramallah) 지역에서 '18년도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대상으로 테러*를 자행했던 테러범의 아버지를 포함한 테러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* '18.12.9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 이스라엘군·민간인 대상 총격테러(부상 7)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지휘관 「아부 우사마」 제거

- 3.30 현지언론은 나이지리아軍이 보르노州에서 작전을 전개(3.22)해 보코하람의 지휘관 「아부 우사마」를 포함한 1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, 이로 인해 지도부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

* 나이지리아·차드·니제르·카메룬은 '15.2월 보코하람 와해를 위해 다국적軍을 창설하여 대테러戰 임무 수행 중

파키스탄 시장 차량 폭탄테러

- '17.3.30 파키스탄 북서부 「파라치나르」 지역의 시장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, 24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부상
 - 목격자는 불상자가 시장에 차를 세워둔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진술
- 테러 직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「파키스탄 탈레반(TTP)」의 강경분파인 「자마툴 아흐라르(JuA)」는 자신들이 테러 배후임을 자처
 - 지역 행정 책임자인 「자히드 후사인」은 “폭탄이 터진 시장 주변에 파키스탄 내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 사원이 있어 시아파 신자를 겨냥한 공격으로 보인다”고 주장
 - * 파키스탄은 수니파 85~90%, 시아파 10~15%로 구성, 파라치나르(아프간 접경지역)는 시아파가 많이 모여 있고, '17.1월에도 시장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5명 사망
- 주민들은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자 치안유지 실패에 대해 항의,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전국적인 테러 소탕을 발표하며 강력대응 언급
 - * '17.2월 ISIS의 수피파 성지 테러(90명 사망, 250여명 부상) 이후 테러범들이 아프간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, 국경통행로 봉쇄 및 은신처로 추정되는 국경지역 포격

< 자마툴 아흐라르(JuA) >

- (목표/이념) 파키스탄 세속정부 타도 및 서남아 내 샤리아(이슬람 율법)에 근거한 신정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- (설립배경) '14.8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지도자 사망('13.11) 후 후임 지도자가 파키스탄 정부와 평화협상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5.3), 미국('16.8), UN('17.7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 및 아프간 접경지역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탈레반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
- (주요활동)
 - '14.11 동부 라호르市 국경검문소에서 자폭테러(60명 사망, 120명 부상)
 - '16.8 발로치스탄州 병원에서 자폭테러(경찰·언론인 등 75명 사망, 112명 부상)
 - '19.5 동부 라호르市에서 자폭테러(10명 사망, 25명 부상)